http://dx.doi.org/10.23166/csgc.2023.4.2.005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화교들의 조국의식(祖國意識) : 『美國齊魯韓華雜誌』 내 조국(祖國)과 중화민국(中華民國)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안병일*

Ⅰ. 서론
Ⅱ. '미운 한국', 그러나 '서운한 중화민국'을 깨우치기 위한 거울
Ⅲ. 패권국가(覇權國家)의 국적을 준, 그러나 결코 조국일 수 없는 미국
Ⅳ. 중화인민공화국, 자랑스럽지만 아직은 두렵고 생경한 고향
Ⅴ. 나를 배신한, 그러나 내가 은퇴하기에 좋은 중화민국
Ⅵ.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화교(이하 미국한화)의 조국의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필자는 그들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화민국의 타이완화, 2016년 이후 격화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분쟁과 양안 갈등이 그들의 대한민국, 미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담론과

* 安秉馹. 미국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사학과 교수.
e-mail: bahn@svsu.edu

조국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들이 발간한 잡지『美國齊魯韓華雜誌』를 핵심 자료로 삼았다.

그 결과, 지난 21세기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국 담론의 중심에는 여전히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화민국의 타이완화에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았다.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2016년 이후 미중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강해졌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민족주의적 자부심 이상은 아니었다. 국가적 정책에서 사회·경제·의료·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화민국과 타이완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냉전기부터 이어진 조국의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은퇴 후 거주지로 타이완을 이상적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의 조국의식은 단순히 민족주의 또는 종족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변화해온 것이었다.

주제어 : 화교, 미국한화, 조국의식, 중화민국의 타이완화, 미중갈등

■ Abstract

The Discourse of Fatherland among Overseas Chinese who Immigrated from Korea to the U.S.

AHN Byungil
(Department of History,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USA)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f fatherland(祖國) among overseas Chinese who immigrated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美國齊魯韓華雜誌, it pays close attention to how Taiwaniz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since 2000 and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ntensified since 2016, affected such discourse.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during the 21st century, the Republic of China remained at the center of their discourse on fatherland. On one hand, although they vehemently opposed the Taiwanization led by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they never saw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United States as their fatherland. In addition, although they actively advocate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pecially since 2016, their imag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still limited by the superficial nationalist pride of the revival of China’s hegemony.

On the other hand, while opposing the DPP's policies on the island of Taiwan, they expressed broad and specific concern not only for the country's political issues, but also for matters such as island's

socio-economic wellbeing, medical insurance and food culture. Their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island of Taiwan were not only due to more conventional sense of fatherland shaped during the cold war period, but also to the idea of Taiwan as an ideal retirement destination for them. In other words, their discourse on fatherland and loyalty to the Republic of China was not merely a product of nationalism or the ethnicity of the Chinese, but a concrete reflection of their daily lives and specific concerns for their own future.

Key-Words : Overseas Chinese, Meiguo Hanhwa, Ethnic Identity of Overseas Chinese, Taiwaniz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출신 화교(이하 미국한화, 美國韓華)들이 조국에 관한 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미국한화는 약 14,000~20,000명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화교 인구 규모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1] 이들은 한국화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충실하게 다루어진 바 없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조국을 어떻게 기술하고, 상상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조국에 관한 담론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화교의 조국의식과 정체성을 냉전체제와 민족주의에 대응한 역사적 구성물로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왕언메이. 2013; 김기호. 2016). 이들 연구는 한국화교 대다수가 산둥(山東)과 허베이(河北) 지역에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臺灣)과 그 주변 도서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중화민국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삼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2] 그 결과, 그들이 냉전체제 아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배하의 산둥 지역과 연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그러한 연계를 거부했던 점을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또한 그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3] 민족경제 건설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던

1) 한국 화교들은 1975년~1985년에만 14,000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衣建美. 2011, 79). 현재 한국 거주 중화민국 국적 화교는 18,0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안병일. 2015, 3-4).

2) 臺灣에 대한 표기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타이완과 대만을 둘 다 인정한다(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래어표기법/). 이 글에서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지리적 개념을 강조할 때에는 타이완을 쓰겠다. 이는 대만과 타이완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어느 편을 선호한 결정이 아님을 밝혀 둔다.

한국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억압당했던 점도 강조하였다. 즉, 한반도를 지배하던 냉전체제와 민족주의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을 받아주던 또 다른 반공국가인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탈냉전과 세계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 화교사회의 세대교체가 한국화교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초국적 정체성, 인터-아시아 정체성,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같은 분석틀로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장수현. 2010; 김경학. 2012; 이창호. 2012a; 이창호. 2012b; 김혜련·여병창. 2012; 김기호. 2016; 조영한·팽의훤. 2019; Beng and Cho. 2019).[4] 이들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화교들의 국가간 이동과 중화인민공화국-한국간 무역 증가로 적지 않은 화교들이 산둥 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감정적 친근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 점을 짚기도 하고,[5]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중화민국의 타이완화'가 한국화교들의 이탈을 초래한 양상을 조명하기도 하였다.[6] 또한 4~5세대로 넘어가는 한국화교 사회의 세대교체와 젊은 세대가 갖는 한국사회에 대한 친연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민족국가 단위나 종족성의 문제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3) 1970년대 한국화교 중 60% 이상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2002년에는 이 비중이 89%에 달했다.

4) 비록 한국화교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거주 화교들의 유연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는 Chun(1996)과 Ong(1998) 등을 들 수 있다.

5) 1990년대 이후 한국화교의 상당수가 보따리장사나 자본투자 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았으며, 산둥 지역으로 귀환·이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장수현. 2010, 269-280; 이창호. 2012a, 174-181).

6) 그 계기로 1994년 회국교생호적등록판법(回國僑生戶籍登錄判法) 폐지와 이를 복구하려는 한국화교들의 청원이 2010년 최종적으로 거부된 사건을 들기도 하고(이창호. 2012a, 167-168), 2000년 중화민국 국적법 개정을 꼽기도 했다(김혜련·여병창. 2012, 72-73). 또한 2000년 민진당 집권 이후의 한국화교 지원정책 약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김기호. 2016, 170-171).

영한·팽의훤.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화교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조국의식과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분석 대상이던 대한민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이들이 발 딛고 일상을 살아가는 미국이 조국의식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이 파악했던 초국가성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논의를 보강할 것이다. 나아가 미중무역분쟁과 양안갈등으로 국제관계가 다시 블록화되고 군사적·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오늘의 현실이 미국한화의 조국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조국 담론이나 국가 정체성이 종족성의 일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변화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계승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할 자료는 『美國齊魯韓華雜誌』(미국제노한화잡지, 이하 『한화잡지』)와 『韓華在浴火中重生』(한화는 불바다 가운데 다시 태어남) 등의 출판물이다.[7] 『한화잡지』는 2004년부터 미국한화들이 간행한 계간지로 매 호 약 60여 건의 기사를 수록하였다. 약 1500부가 배송되는데, 이는 미국한화 가정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잡지에 기고한 이들은 주로 50대 후반에서 80대의 남성으로 대개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타이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이다.[8] 또한 필자는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부 미시

7) 이 연구에서는 『한화잡지』 15호(2007년 가을호)~66호(2022년 11월 간행)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8) 1952년~1995년에 약 8,000명의 한국화교 학생이 타이완 소재 대학을 졸업하였다(Choi. 2001, 93). 미국한화를 구성하는 1940년대~1970년대 생의 상당수가, 그리고 대학 진학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화교 중 20여 명을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하였다.[9] 인터뷰에 응한 대상들 역시 『한화잡지』의 필진과 중복되거나 사회적·경제적·연령적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새로운 화교 인구 유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10] 이들의 연령대는 미국한화 사회의 인적 구성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화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물론 미국한화 전체의 인식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들 중 여론주도층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11]

Ⅱ. '미운 한국', 그러나 '서운한 중화민국'을 깨우치기 위한 거울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화교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떠올리는 일차적인 이미지는 '미운 한국'이다. 자신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 한국

9) 필자가 인터뷰한 이들 가운데 여성은 9명이었다. 하지만 그 중 5명은 부부를 함께 인터뷰한 경우였다. 부부가 인터뷰에 참여한 경우, 남편이 인터뷰를 주도하며 아내는 보충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인터뷰는 미국한화 여성의 의견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10) 한국화교의 미국 이주는 1990년대 이후 급감했다. 한국에서 미국 이민이 1985년의 30,548명을 정점으로 1991년 12,754명, 1996년에 7,277명으로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 한편, 미국한화들에게서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거나 화교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안병일 2015, 35-38). 이러한 이유로 미국한화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다.

11) 필자는 2020년 추가 인터뷰를 계획한 바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 당선, 트럼프(Donald P.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 미중무역분쟁 본격화 등 2016년 이후의 정세 변화가 미국한화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고 기존 인터뷰 대상 상당수가 노환 등으로 사망하여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한화잡지』 기사 분석만으로도 2016년 이후의 인식 추이 파악에 큰 무리는 없다.

정부의 억압과 한국사회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토로하였다.[12] 정부가 자장면 가격도 통제했고, 식당의 크기도 50평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고 하였다. 외국인 신분증도 3년마다 갱신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고도 하였다.[13]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그러한 법적 차별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국인(大國人)에서 소국인(小國人)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鞠栢嶺. 2014, 17-18)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중국인으로서 가지는 그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었다.[14] 이러한 억압과 차별 때문에 그들은 한국인에 대하여 "까오리빵즈(高麗捧子)"라는 멸칭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진저리치게 되었고[15], 결국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焉晉琦. 2012b, 82-83).

그들은 이민 후 재미 한인들을 상대로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한국인 공동체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미국한화라는 자신들의 새로운 종족 정체성을 만들며,[16] 韓華聯誼會(한화연의회)[17]나 美國齊魯韓華聯

12) A. 캘리포니아, 2014년 5월 29일. 인터뷰 자료의 경우, 피면접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알파벳으로 처리하고, 인터뷰 장소가 속한 주, 날짜만을 기재했다. 미국한화 공동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도시와 이름의 일부라도 밝히면 신상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 B. 캘리포니아, 2014년 5월 12일.

14)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화교들은 귀화를 금기시하였다. 재산이나 사업상의 문제로 귀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화교신문에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고 지역 화교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崔仁茂. 2003, 156-164).

15) 이런 표현은 미국한화들의 에세이에도 자주 등장한다(于尙君. 2013, 24-25; 于尙君. 2014, 5-9; 阿良. 2019, 21; 范湘濤. 2021a, 8-9).

16) 미국한화가 미국에서 독자적인 종족공동체로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안병일(2015) 참조.

誼協會(미국제노한화연의협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겪은 피해와 억압이 공통분모가 되어, 그들은 미국 이민 후 30년~40년이 된 현재까지도 '미운 한국'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1992년 LA 폭동 당시 코리언타운이 피해를 보았을 때 "한국인이 화교들을 그렇게 박해하더니 그런 피해를 당해도 싸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18] 최근까지도 한국인들이 공자(孔子)를 한국인으로 주장한다거나, 중국에서 기원한 단오절을 자신들의 명절로 둔갑시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한다거나, 한국인들이 서유기를 한국의 소설로 주장한다고 하는 등의 일부 극단적이고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질 때 자신들이 한국에서 입었던 피해까지 반추하며 한국인들의 '몰지각한' 속성을 비난하기도 한다.[19] 일부는 현재도 한국인들은 냉대와 질시의 민족이라며 옛 상처를 곱씹는다(長征. 2011, 5-6).

반면 중화민국은 이러한 '미운 한국'을 대체해 그들에게 소속감을 가질 '조국'이 되어 주었다. 따지고 보면 대개 산둥과 허베이 지역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한국화교들에게 기후도 언어도 다른 타이완은 완전히 생경한 외지였다.[20] 하지만, 여전히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명을 담지하고 있다

17) 한화연의회는 한국 출신 화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北加州韓華聯誼會(북가주한화연의회)와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하는 南加州韓華聯誼會(남가주한화연의회)로 조직되어 있다. 나머지 10개는 각 주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18) C. 캘리포니아, 2015년 5월 12-13일.

19) 작자미상. 2010a, 16-17; 작자미상. 2010b, 39; 작자미상. 2014e, 60-61.

20) 물론 중화민국의 공식 언어는 북방의 관어인 국어(國語)이지만, 1949년 국부천대(國府遷臺) 이전까지 타이완의 일반 주민들은 만다린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다. 각자의 배경에 따라 타이완 민난어(臺灣 閩南語)나 타이완 커지아어(臺灣 閩南語), 또는 타이완 원주민 언어 등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는 점에서, 또 언젠가 그들의 고향을 찾아줄 대륙반공의 기지로서, 타이완에 위치한 중화민국은 그들에게 조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왕언메이. 2008, 545-557).

중화민국 정부 역시 해외 화교들에게 적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대륙을 공산당에 빼앗겼지만 전 세계 화교들에게 정통 정부로 인정받음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화민국 정부는 한국화교들을 각별하게 대하였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적하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린 화교 피난민들을 3차례에 걸쳐 안전한 타이완으로 이송하였고(國政. 2010, 8), 한국화교들이 완전한 중화민국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화교학교에 교과서와 운영자금을 보조하기도 하였다(손준식. 2014).

게다가 미국한화의 상당수는 타이완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은 이들이었다.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했던 한국과 달리, 중화민국은 대학 특례입학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호적을 부여하여 졸업 후 취업 시 신분증명도 가능하게 하였다(이창호. 2012a, 165-167). 한편 중화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지워지던 병역의무에서는 그들에게 예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중화민국을 향한 지지에는 이러한 혜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미국한화들의 ‘나고 자랐지만 미운 한국’과 ‘저 멀리 타이완에 있는 조국’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는 2000년을 전후해 변하기 시작하였다. 총통 직접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당선되며 ‘중화민국의 타이완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당 정권이 주장했던 전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민국의 위상 대신에, 타이완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방향이었다. 이에 따라 ‘중화민국 자유지구’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별도의 무호적 여권(無戶籍護照)을 발급해 차별

을 두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화교 역시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이창호. 2012a, 167-168; Lien and Chen 2013). 또한 한국화교에 대한 중화민국 정부의 지원도 감소하였다. 한국화교 뿐 아니라 미국한화들도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민진당을 비판하고 국민당(國民黨)의 재집권을 기대하였다(안병일. 2021, 100-103).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마잉주(馬英九)가 총통에 당선되어 국민당이 재집권한 2008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87년 타이완 계엄령 해제, 1996년 총통 직선제 등과 같은 중화민국 민주화 과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총통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서는 바로 이러한 상실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작자미상. 2014c, 40-41).

그러나 그들의 '그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히 2000년대 이후 한국화교들에 대한 혜택 축소 때문만은 아니다. 상실감의 배후에는 한국이 중화민국을 경제·정치·문화 방면에서 추월했다는 조바심도 있다. 미국한화들은 인터넷과 화상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남은 화교 친구·친척들과 더 긴밀하게 연락하며 한국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이창호. 2012b). 그들은 한국이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더 성숙해졌고, 화교들에 대한 차별 정책들도 많이 수정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于尙君. 2013, 25-26; 2014: 5-9).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한화들의 글에서 고향이나 그리움의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 화교는 한국 전쟁 당시 4일 동안 가야 했던 거리가 KTX로 3시간도 안 걸리는 것을 보며 한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피난시절 부산에서 다녔던 학교와 전시 중화민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 한국에서의 보냈던 시간을 추억하며, 안동(安東) 일대에선 예스럽고 순박한(古老淳樸) 한국의 모습을 예찬하기도 하였다(李作堂. 2015, 24-28). 한국이 차별로 서러움을 느끼던 땅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한 중년 여성 화교도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은퇴하

여 살고 싶은 곳으로 한국 농촌을 꼽기도 했다. “나는 한국인들이 정말 싫었어요. 맨날 짱개라고 놀리고 한국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고향이 그리워요. 그 한국 티브이 프로 있잖아요. 전원일기라고. 나도 그렇게 한국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21]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묘사는 중화민국의 대안으로 선진국인 한국을 선택하려는 맥락보다는, 타이완화로 변질되어 버린 중화민국의 실패를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미국한화는 『한화잡지』 기고에서 타이완과 한국이 공히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족성이 강해서 안중근이나 윤봉길과 같은 애국지사가 나왔고 지금도 반일감정이 강한 반면, 타이완 사람들은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 마냥 일본을 좋아한다고 하였다(季冬. 2014). 타이완화 과정에서 반일감정이 약해진 현재의 중화민국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소개한 기사 역시 사실 전달보다 중화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말미에 한국과 중화민국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평가 밑에 깔린 의도를 드러내었다. 남한과 중화민국이 각 영역에서 대등하지만, 남한 대통령은 한결같이 남북한의 결합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규모를 키우는 반면,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은 (대륙은 방기한 채 중화민국의 타이완화에만 매진해) 중화민국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작자미상. 2018b, 5-6). 다른 글에서는 타이완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좋아하니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이들이 한국 전화기와 자동차를 사고,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으로 관광을 가는 현실을 걱정하였다(작자미상. 2014d, 56-57). 한국을 부각해 중화민국을 각성시키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21) D. 미시간, 2013년 9월 17일.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는 자신들을 부당하게 제제하고 배제하던 미움의 대상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선 따라잡아야 할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한 이미지는 대부분 중화민국을 비판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또 이처럼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글을 쓰는 저자들은 거의 매번 자신이 결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한화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고 중화민국이 타이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조국의식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화민국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패권국가(覇權國家)의 국적을 준, 그러나 결코 조국일 수 없는 미국

『한화잡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한화들이 (문서상 조국인) 미국에 대하여 느끼는 양가적(兩價的) 감정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지구적 패권을 가진 국가의 시민권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이며 곧 몰락할 나라라고 비판하였다. 일견 모순적인 이 두 감정의 중심에는 중화민국의 상대적 약화와 새로 부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글에서 미국은 조국으로서 등장하지는 않는다.

미국한화의 대부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이민 붐을 타고 나름의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도미했다. 처음에는 주로 한국 화교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며 물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곧 가족과 친척을 초대하는 연쇄이주(chain migration) 형태로 이주하였다(안병일. 2021, 87). 미국 유학 후 학계나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국－타이완－미국을 잇는 무역업이나 부동산소개업, 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 가운데서 미국 모교에 백만 달러 이상의 기부를 할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 중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커다란 부를 움켜쥔 사람, 여러 개의 음식점 체인을 소유한 사람, 지역 정계에 진출해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는 점포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살고 있거나 최근에 은퇴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자녀들은 절대다수가 미국에 살고 있다(안병일. 2015, 35-38).

미국과 같이 여러 인종이 문화나 언어를 통해 나름의 네트워크를 이룬 사회에서 서류상의 국적은 개인의 소속감이나 생활양식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 출신 화교 1세대들 역시 미국한화라는 정체성과 지역 한화연의회(韓華聯誼會), 미국제노연의협회(美國薺魯聯誼協會), 한국 화교학교 동창회, 배드민턴 클럽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요즘은 위성을 통해 중국 본토의 CCTV, 홍콩의 펑황(鳳凰) 텔레비전, 타이완의 TTV 등 중국어 채널로 뉴스를 접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위챗(WeChat) 등 메신저를 통해 중국어로 한국, 타이완, 그리고 미국 타주(他州)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계의 소식을 나눈다(이창호. 2012b, 15-20).

이런 그들이 자신을 미국인으로 내세울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 정부를 상대할 때이다. 1992년 한중수교(韓中修交)를 즈음해 한성화교협회 소유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의 경우가 극명한 예이다.[22] 미국한화들은 중화민국 대표부에

22) 외국인이 사단법인을 결성해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당시 한국의 등기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한성화교협회는 해당 건물을 중화민국 대사관 소유로 등기해 두었다. 그런데, 한중수교 당시 이 비외교업무 자산들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되거나 중화민국에 의해 매각될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 화교사회가 대응에 부심하였다. 한성화교협회 소유 건물을 둘러싼 중화민국 대표부와 한국화교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한화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기호(2016)와 안병일(2021) 참고.

대항하여 한국화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LA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을 상대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료들이 반응했다고 생각했다.[23]

그들은 이러한 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이용하려고 하였다. 한국전쟁 참전 화교들의 업적 인정과 참전용사 자격 부여 및 보상을 한국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화교들이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에 간절히 바라던 사항이었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에 대한 심리전 등의 이유로 미군은 한국화교들을 조직해 임무에 투입하였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는 반공화교게릴라부대가 중국인특수수색대라는 명칭으로 한국군에 합류해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중화민국과 한국군이 공조하여 중국인 부대(S.C.-Seoul Chinese)를 조직하여 전투 및 포로 심문 등에 투입하기도 하였다.[24]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임무 수행 중 실종·사망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중화민국의 개입이 소련 참전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비공개적으로 운용하였고, 중화민국 역시 대사관을 통해 인원을 모집하고 전역한 장교를 통해 조직을 이끄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참여하였다(왕언메이. 2010). 따라서 한국화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 및 인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전 후 어느 정부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참여 자체는 인정했지만[25]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고, 중화민국 정부도 공

23) E. 캘리포니아 2014년 5월 28일.

24) 한국화교들의 한국전쟁 참여에 관하여는 왕언메이(2010) 참조.

25) 중국인특수수색대를 이끌다 전사한 장후이린(姜惠霖)과 같은 부대로 전투에 참여하고 서울 재탈환 전투에 공을 세운 웨이쉬팡(魏緒舫)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식 기록이나 중화민국 군인 군번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미국한화들은 이 오래되고 억울한 숙원을 미국 시민권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들은 미국한화수비주위회(美國韓華豎碑籌委會)와 전미한화연의총회(全美韓華聯誼總會) 명의로 『한국화교참가한전종결보고』(韓國華僑參加韓戰終結報告)를 발간하고 한국 국방부에 실종자·사망자 보상(撫恤)을 요구하는 공식 진정서를 제출하였다(呂仁良·崔仁泰. 2007). 또한 참전 화교들을 인터뷰하고 주한 중화민국 대사의 회고록을 분석해 189명의 한국화교들이 군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아 활동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의관총(衣冠塚, 직접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 의관을 대신 묻어 만든 무덤)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자고 화교사회에 호소하였다(崔仁茂. 2007).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귀환 예식에 참여하고 그 미군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盧威攝. 2010, 27) 미국인으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민국 정부에도 사망자·생존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요청하였다. 2007년에는 LA에서 한국전쟁 종군 화교 60주년 기념 추도의식을 거행하고 추가 조사로 드러난 참전 300여명, 전사·실종·부상 도합 120여명이라는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에 그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을 미국인으로서 요청하였다(啓銘. 2010, 69-68).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는 그들의 진정서를 반려하였다. 미국 시민권 자격도 양국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崔仁茂. 2013).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과정은 미국한화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한국화교들이 앞서 실패했던 사안에 미국한화들이 희망을 품고 매달렸던 근거에는 '미국 시민권'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존재했다. 한국과 중화민국 양 정부가 패권국가 미국의 시민인 자신들의 진정서는 좀 더 성의껏 검토하리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미국한화들은 미국의 패권이 부당한 제국주의적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리비아 내전에 대해 구미 제국주의자들이 국내 반대파를 충동질해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프랑스·영국·미국이 주축이 되어 정부군에 폭격을 가한다고 진단하며,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 1899-1901) 당시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하던 방식에 비유하기도 하였다(작자미상. 2011).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 관리들은 과거의 리훙장(李鴻章)이나 공친왕 이신(奕訢)과 같은 나약한 관료들이 아니므로 미국의 무력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을 응원하였다(范湘濤. 2018, 17). 그들의 글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등장을 억제하려고 유가와 식량가격 앙등을 조장하고(작자미상. 2011. 42-43), 1980년대 일본경제에 버블을 일으켜 융성하던 일본을 주저앉힌 것과 같이 이제 무역전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흥성을 억제하려는 존재(李作堂. 2019, 53)로 그려졌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문제 역시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약소국들을 억누르려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焉晉琦. 2011, 65).

한편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중국의 흥기에 떠밀리고 늘어나는 국채에 눌려 곧 무너질 운명에 있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빈곤선 이하 인구가 4300만 명에 달하고, 가구 중간 소득이 5만 달러임에도 평균 8만 달러를 지출해 가구당 30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으며, 2010년 연방정부 적자가 1조 3000억 달러에 누적적자는 13조 5300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빈궁한 초강대국(超大國)이라고 비꼬기도 하였다(阿良 2011a). “中國 GDP 將超美國! 不爭霸權地位”(중국의 GDP가 곧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 패권의 지위를 다투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기사는 미국이 국채의 무게에 억눌려 헤매는 동안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4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글은 5000년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국이 세계의 재부, 문화, 과학과 실력의 중심에 있었으며 19세기말~20세기초 중국이 겪은 침체는 일시적 오류(偏差)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누렸던 세계적 패권을 중국이 곧 끝낼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작자미상. 2014a).[26)]

위의 글에서 자신들이 30년~40년을 살았고 자녀들의 절대다수가 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패권국가의 시민권을 주었던 미국의 '쇠락'에 대한 유감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중국에게 굴욕을 안겼던 세계적인 악당의 몰락이자 중국의 부상이 수반하는 '사필귀정'의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 이후 미중 갈등의 첨예화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미국 내 사망자 증가나 2021년 의회 점거 폭동을 미국 패권 상실의 징후로 파악하였고(張泰河. 2021a; 李作堂. 2021), 2022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그러한 패권 상실을 확신케 하는 증거로 보았다(范湘濤. 2021c, 32-33; 水秉和. 2021, 36-3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부추겨 일어난 음모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홍콩의 반중시위를 조장하지만 내부에서는 총기와 마약을 통제하지 못해 곧 무너질 국가로 미국을 묘사하며, '추악한 미국놈'(醜惡的美國佬)이라는 멸칭을 사용기도 하였다(張泰河. 2021b, 15-16).

미국한화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미국 시민권을 앞세우고 이 패권국가가 주는 위상에 기대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패권을 국채와 군사력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으로 보며 중국의 귀환에 따라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언뜻 모순적인 태도는 그들에게는 그리 모순적이지

26) 이 글의 저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세계은행은 2014년에 이미 구매력 기준 GDP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고 발표하였다(박승혁. 2015).

않다. 그들은 한국과 타이완화한 중화민국이 냉대하는 한국화교들을 자신들이 패권국의 국적자로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중화민국 교과서에서 배운)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중화제국 침탈의 부당한 과거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문화도 언어도 다른 미국에서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되고 무시되던 경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음 어느 한구석에도 미국은 그들의 조국이 아닌 것이다.

"移民美國四十年多少悲歡多少淚"(미국이민 40년 얼마나 많은 비탄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었나)라는 에세이는 나고 자란 한국과 반평생을 산 미국에 대한 이들의 감정을 잘 드러낸다. 저자는 산둥에서 태어나 6살에 한국으로 이주해 40년 동안 경기미(京畿米)를 먹고 한강물을 마셨으며, 또 다른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그는 "누군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국가를 물어본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중국이 나의 조국이고 나의 뿌리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焉晉琦. 2021, 39).

Ⅳ. 중화인민공화국, 자랑스럽지만 아직은 두렵고 생경한 고향

그렇다면 미국한화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한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들의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그들이 미국에 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훨씬 더 정서적 친근감을 갖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들과 부모 세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산둥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중화민국은 이제 타이완화하여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서는 『한화잡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공모함이 취역했을 때 중국 해군의 굴기를 보며 환호하였고(작자미상.

2015b), 미국 매체를 인용해 2040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슈퍼대국(超級大國)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작자미상. 2018a). 심지어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때에는 갈등의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고 러시아와의 묵계도 있다며 모든 중국인들이 習大大(시진핑 국가 주석의 애칭)의 영도 하에 중국몽(中國夢)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阿良. 2017).

하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다수는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에 경도된 지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수의 미국한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그곳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그토록 그리던 부모의 고향 땅 산둥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될 수 없음을, 이 고향에 속하지 않게 된 사람임을 자각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1979년 정식 수교하고 베이징(北京)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많은 미국한화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 화교는 고향인 산둥을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많은 이들이 중국 비자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귀화했다고 설명하였다.[27] 그래서인지 『한화잡지』에는 거의 매 호에 산둥 옌타이(烟台) 부동산 소개업자의 광고가 실렸고, 옌타이를 방문할 화교들에게 임시 숙소를 알아봐 줄 소개업자의 연락처가 나왔다. 2010년에는 1,100호가 있는 황바오하티엔야주(皇寶海天雅築)라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나오기도 했다. 미국한화들은 '오션뷰'(ocean view)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현지인들은 이런 곳을 외풍이 심하다고 꺼렸기 때문이다.

필자가 LA에서 인터뷰한 한 화교 역시 옌타이에 아파트를 구입해 이주

27) 중화민국이 자국민의 대륙 방문을 허가한 1987년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산둥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었다.

하였다.[28] 그는 2003년에 남보다 앞서 아파트를 장만해 고향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안도하였다. 하지만 그는 2010년에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82년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는 낙후함에 약간 놀랐지만 어릴 때 헤어졌던 형과 친척도 만나서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이후에도 중국의 성장을 보며 자랑스러웠고, 결국 은퇴 후 지낼 계획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들떠 있던 첫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남이 되어버린 현실에 좌절하였다. 가짜우유 파동과 같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무너져 있는 현실도 안타까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꽌시'(關係)가 없어서 진료 순서가 밀리는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바로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외국인에 불과했던 것이다.[29] 그런 일을 자주 겪으면서 그는 중국이 자신이 그리워하던 그곳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이 그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화잡지』에는 옌타이 지역의 믿을만한 병원과 의사를 소개하는 칼럼도 생기기도 하였다(賈鳳鳴. 2010). 모든 중국인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몽을 꾸자는 글을 썼던 이가 상인들이 가짜 상품을 팔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며 떨어진 중국의 도덕성을 걱정하는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國歌)에 "중화민족이 가장 위험한 때"(中華民族到了最危險的時候)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지금이 중화민족의 도덕이 제일 떨어진 때라고 개탄하였다(阿良. 2011b, 66-67).

중국에 대한 실망은 고향에 아는 사람이 없고 가짜 음식을 판다는 데만

28) E. 캘리포니아, 2015년 5월 12-13일.

29) 미국에서 온 화교뿐만 아니라, 산둥 지역에 재정착한 한국 출신 화교들을 역시 '꽌시'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이창호. 2012, 174-187).

그치지 않았다. 미국한화들은 산둥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산둥 방언'을 듣고 '한국인'이나 '외국화교'로 취급할 때 충격을 받고 소외감을 느꼈다. 한화교는 그토록 그리던 고향에 가서 유려한 '고향 방언'을 하자 마자, 모든 중국인들이 "당신 한국화교죠?"라고 알아채어 놀랐다고 하였다. 그가 산둥어로 알고 썼던 중국어가 실은 '김치 맛'이 상당히 들어간 '오염된' 산둥어였던 것이다(賈鳳鳴. 2010). 옌타이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낸 그는 자신들의 중국어가 현대표준중국어인 보통화(普通話)와 달라져서 이제는 중국표준어 – 한국화교식중국어 비교사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00여 개의 단어를 간추려 "間語韓國華僑的普通話"(간추린 한국화교식의 중국표준어)라는 제목으로 『한화잡지』에 실었다.[30] 그는 한편으로는 현대 중국어에 혁명시절의 많은 표현이 들어와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들이 산둥 서부 방언과 한국 한자식 단어를 섞어 쓰다 보니 현지 중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며 당혹감을 드러내었다(賈鳳鳴. 2011).[31] 그들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고향에 가서야 자신들의 고향이 상상 속에나 존재했음을, 실제의 고향 땅에서 자신들은 이방인에 다름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자신들이 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

30) 한국화교들은 거지를 꺼우지(狗鷄), 아파트를 아파따오(阿把刀)라고 한국식으로 음차하여 쓴다. 중국 단어인 쫑통(總統)을 따통링(大統領)으로, 꽁쓰(公司)를 회이스(會社)로 한국식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본토에서 사어(死語)가 되어 다른 단어로 대체된 단어도 있다. 원래 중국어 단어였던 바이깐(白干)이 사어가 되고 까오량지우(高粱酒)로 대체된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사어나 한국식 한자어 또는 한국 음차어 등을 부지불식간 사용하는 한국 출신 화교들은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다고 한다.

31) 미국한화들이 옌타이에서 느낀 이러한 생경함에 대해서는 Ahn(2016) 참조. 이창호(2012, 174-187)와 장수연(2010, 286-289) 역시 고국인 중국으로 재이주한 한국화교들이 느낀 곤란함과 당혹감을 설명하고 있다.

지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증폭되는 것 같다. “返鄉雜記”(반향잡기)라는 수필은 그러한 지점을 드러낸다. 은퇴한 후 매년 청명절에 고향 산둥 옌타이에 가서 성묘를 하는 이 글의 저자는 그리운 고향 음식과 태산 관람에 더하여 치과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받은 것에 만족하였다. 그러다 치과에서 일하는 누구도 위생장갑을 쓰지 않는 것을 알고 경악하였다. 그리고 망자가 묻히는 묘지 이용 권한이 20년으로 한정되어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내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이 제도가 산 정상에 360개의 계단을 내어 조성한 화궈펑(華國鋒) 전 국가주석의 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과 지도자가 죽은 뒤에도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중국의 현실에 분노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근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문화수준(文化水平)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글을 마쳤다(李作堂. 2011).

“兩個眞實的故事, 映襯出大陸社會和美國的巨大差異”(중국 대륙과 미국의 거대한 차이를 선명히 대조하는 두 개의 실화)라는 에세이에서 한 화교는 대륙의 사회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었다. 그는 미국에 일하러 왔다 중풍에 걸린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 친구는 40일 이상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병원비로 50,313 달러가 청구되었다. 친구가 난감해하자 의사는 시 정부 구제예산을 신청해 보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친구를 간호한 그를 불러서는 42일간의 최저임금(뉴욕 최저임금 시간당 11.8 달러)을 계산해서 원무과를 통해 5,109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경험을 소개한 후 에세이의 저자는 다른 친구에게 들은 대륙의 사례를 전하였다. 간호사인 그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어느 아버지가 병든 딸을 데리고 방문했다. 검사 결과 희귀 감염으로 밝혀졌는데, 15일간 산소호흡만 하면 자력으로 나을 수 있었다. 그 아버지는 하루 1,500위안의 산소호흡기 비용을 빌리기 위해 친척들을 찾아다녔으나 모두들 외면하였고, 병원도 치료비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치료해줄 수 없다며 산소호흡을

중단하였다. 아이는 이튿날 사망하였다. 에세이의 저자는 이 두 사례를 들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중국은 인성이 메마른 사회라고 비판하였다(작자미상. 2015a).

중국 본토와 접촉 늘고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그들은 중화민국 교과서에서 배웠던 상식과 미국에서 경험한 인권과 복지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한국에서의 냉대와 차별을 이겨내며 그리워하던 고향이었기에 실망감은 더 컸다. 이러한 기분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 한국화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식 교육을 받아서인지 갑작스러운 '변신'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의식이나 관념상의 문제만이 아닌, 생활상에서 느끼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최근에 한국의 (화교)친척에게서 온 전화로 들은 말인데, 현지 화교들(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화교)끼리 하는 말에, "차라리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대륙 여자들은 절대 며느릿감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대륙의 여자아이들은 건방지고 드세서 남자들에게 "내가 발로 너를 차서 쫓아 내버리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莫然. 2015).

자랑스러운 중화인민공화국의 굴기와 차이나드림(中國夢)은 결코 그들의 꿈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고향은 그들에게 서먹하고 생경하며 환멸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결국 그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중심에는 '타이완식' 교육이 있었던 것이다. 그 타이완식 교육의 다른 말은 타이완에 위치한 중화민국이었다.

2016년 이후 『한화잡지』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더욱 확연해진 것은 사실이다. 중화민국에서 타이완화의 색채를 강화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고, 미국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이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무역전쟁

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한화잡지』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과 민진당의 무능 및 대미종속 정책을 비판하며 시진핑(習近平)의 중국 체제에 대하여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기사가 전보다 더 두드러졌다. 범죄인 인도법이 계기가 되어 발발한 홍콩의 2019~2020년 시위를 미국의 기획과 추동으로 촉발된 정치적 음모로 비판하기도 하였고(張泰河. 2021b, 15-16), 중화인민공화국을 단순히 공산당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부(國父) 쑨중산(孫中山)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건국대강(建國大綱) 및 건국방략(建國方略)의 완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佟秉宇. 2021, 70).

그런데 이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글에서는 그 안의 생활이나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제한 조치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도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한화잡지』가 대륙 내 사업 전망이나 생활 편의를 위한 참고 지식 등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은 일정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7년 이후 기사에서 등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단순히 대륙(大陸)으로 표기되어, 민족부흥이나 중화부흥을 이룰 도구로 등장할 뿐이다. 중화민국이 타이완화를 진행하면서 방기한 쑨중산의 삼민주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것이다(李作堂. 2019b, 57). 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과 이후 세대가 살아갈 어떤 구체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라, 존경하는 쑨중산의 삼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하여, 중화민국의 이상을 완성할 상상속의 조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한화들의 조국의식은 아이러니 위에서 있다. 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방문하고 뿌리를 내리려 할 때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소속감이 희석되어버리는 곳이었다. 반면 타이완화로 중화민국이 형해화될 위기에 처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질적인 방문이 제한되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현실성을 잃을 때에야 중화인민공화국은 비로소 온전히 그들의 조국이 되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상속의 조국 이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그들의 조국의식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Ⅴ. 나를 배신한, 그러나 내가 은퇴하기에 좋은 중화민국

중화민국의 타이완화를 바라보는 미국한화들의 감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것 같다. 왕언메이(2013)와 김기호(2016)는 한국화교들의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국의식의 붕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요약하였다. 한국화교들과 정서적으로 묶여 있는 한국 출신 미국 화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중화민국의 타이완화는 중화민국의 민주화와 맥을 같이했다.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긴 것이 본토인들의 타이완 지역 점령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1949년 타이완과 진마지구(金馬地區)에 내려졌던 계엄령이 타이완에서는 1987년까지, 진마지구에는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은 당시 국민당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본토에서 건너온 중앙민의대표(中央民意代表)가 새로운 선거 없이 국가의 전권을 행사했다(왕언메이. 2008, 577-580). 이러한 상황은 '증가정원 선거'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완만 한 채 1991년까지 유지되었다.

타이완 주민들에게는 이처럼 부당하고 억압적인 체제였지만, 한국 출신 화교들은 그 체제의 억압성을 안정과 생존의 강인함으로 보았다. 공산혁명으로 산둥 지역이 공산당에 점령되자 고향을 잃고 한국으로 왔다가, 전후

의 혼란과 파괴에 더해 한국사회의 냉대에 시달리던 화교들에게 타이완의 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中華民國與我"(중화민국과 나)라는 수필은 글쓴이가 50년 전 처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의 감격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 반세기전 10월, 나는 처음으로 중화민국 건국 50주년(1961년) 쌍십절(중화민국 건국절)에 해외화교 귀국단으로 참가하여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비행기가 타이완의 상공을 선회하고 있을 때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창문으로 지면을 멀리 내려다보았다. 종횡으로 구획된 농지, 싱싱하게 푸르른 산악, 활처럼 휘어져 완만하게 흐르는 강, 붉은 벽돌에 회색 기와를 올려 돋보이던 민가들.
>
> 뙤약볕이 두루 비추는 아래에 수많은 국기가 바람을 맞으며 마치 우리 같은 해외 떠돌이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손짓을 하듯 펄럭이고 있었다. 내 눈의 홍채 가운데 비치는 물건 하나, 풍경 하나가 다 새로운 것이고, 애정이 가는 것이어서, 내가 다시는 절대 절대로 나라 없고 부모 없는 아이라 욕먹을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나라와 민족을 중시하여 중화민국의 틀에서 은원(恩怨)과 (서로) 원수로 삼는 (분열)을 근절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 세기에 또 한 번의 백 년을 향해 매진해 주는 것이다(焉晉琦. 2012a, 필자 강조).

그에게, 그리고 많은 한국화교들에게, 중화민국을 향한 조국의식은 냉전시기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없던 소속감에 기인했다. 그 소속감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해질수록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 한국화교들에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글을 썼던 한 화교는, 자신이 고교 졸업 직후 타이완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고 창업하여 40여 년을 산 미국 국적자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고 사랑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은 더더욱 아니며 바로 중화민

국이 있는 타이완이라고 강조하였다(于尙君. 2015a, 6).

이러한 미국한화들에게 중화민국의 타이완화가 가져오는 상실감은 더 컸을 지도 모른다. 미국에 산지는 20여 년이 되었다는 리우쉐우(劉學武)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는 한국화교로 1955년에 대학 진학을 위해 타이완에 왔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조국과 나의 정부(政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포와 아름다운 보물섬(寶島)이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변해버렸다.”(劉學武. 2018) 즉 그는 중화민국의 타이완화를 조국의 상실이나 나아가 배신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우리를 배신한 조국”이라는 정서는 미국한화들에게 지배적이다(松濤君. 2010, 21-22).

그래서인지 그들은 중화민국 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진당 후보들의 사소한 비리나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비방거리까지 『한화잡지』에 실어 공유한다. 2012년 선거 전후로는 차이잉원 후보 아버지의 치부(致富) 과정(沈富雄. 2012)이나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의미 없는 소문(작자미상. 2014c) 등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났다. 2016년 선거를 전후해서는 다른 나라 여성 정치 지도자들의 실패까지 차이 총통의 타이완화 정책에 연관시키며 비난했다(李作堂. 2017, 22-23; 작자미상. 2017, 25; 子瑜. 2017, 83.). 한편 2020년 선거를 즈음해서는 국민당의 유력한 후보였던 한궈위(韓國瑜)과 궈타이밍(郭台銘)을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다(隨元盛. 2019, 16-17; 謝芷生. 2019, 34-35; 范湘濤. 2019. 5; 작자미상. 2019, 83 등). 이들의 소망과 달리 차이잉원 총통이 2020년 선거에서 2016년 선거의 56.12%보다 높은 57.13%의 득표율로 재선된 후, 미국한화들의 민진당과 차이 총통에 대한 비판은 정도를 더했다. 차이총통의 박사학위 진위논쟁에 거의 일방적으로 학위가 거짓이라는 식의 기사를 실었고(작자미상. 2021, 59), 심지어는 차이 총통이 결혼하지 않고 관저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비판하며 인생 경험과 인자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柯文哲. 2021, 80).

민진당과 차이 총통에 대한 비판이 개인적인 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21년 5월 중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을 잘 관리하던 타이완섬에서 질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사망률이 3%에 이르렀을 때는 방역 실패에 대해 민진당과 차이 총통을 비판하였다. 백신 접종과정에서 우선순위가 투명하지 않고 오랜 봉쇄 정책으로 치솟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거나(林湘音. 2021, 42-43), 2021년 가뭄으로 수자원이 고갈되었을 뿐 아니라 수력발전량이 감소해 전력부족이 심각해졌다거나(陳約翰. 2021, 16-17) 민진당이 추진하던 탈원전정책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일 뿐 타이완의 실정에 적합하지도 않다는(王善富. 2022, 87) 등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에 대한 『한화잡지』 필진들의 비판과 비난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이는 본고의 주요한 관심사도 아니다. 대신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하는 비판과 비난의 구체성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언급만 반복되는데 비해, 타이완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와 실업률, 전력부족과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제시하였다.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을 따질 때에도 한국과 일본의 전력 수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들며 설득력을 더하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타이완 밖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까지도 중화민국의 정책과 결부하여 해석하였다. 일례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병할 때도 기사는 중화민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의 아프가니스탄은 내일의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차이잉원 총통은 다른 사람(미국)에게 자신(중화민국)의 보호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范湘濤. 2021c, 32-3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국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대신 무기만을

지원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양안에서 벌어질 무력충돌에도 미군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타이완 주민들 역시 미국의 개입에 기대지 말고 직접 대륙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隋元盛. 2021, 6-7).

이처럼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의 중심에는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도, 자신들의 종족적 배경이 되는 산둥 지역이나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닌 타이완과 중화민국이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양안갈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넘어서 타이완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기초한 것이다.

> 나는 비록 타이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타이완에서 생활한 것도 비록 8년이 채 되지 않지만, 타이완의 산과 물, 순박한 인심(純朴民風)과 맛있는 간식거리(美食小吃)를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완의 사랑스러운 일반 주민을 사랑한다. 그러한 감정은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타이완 독립분자들보다도 훨씬 깊고 순수하다(李作堂. 2021b, 58-59).

이 에세이는 학창시절 구국단으로 참여하여 타이완을 여행한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곳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조국이 아니라 추억이 서린 장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인 미국한화들의 중화민국과 타이완 정치에 대한 일견 '과도한' 관심은 실은 단순히 "사랑하는 조국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겠다"는 애국심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한화 상당수가 타이완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타이완을 이상적인 은퇴 후 거주지로 꼽고 있다. 피상적인 관념상의 조국의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돌아가 받을 법적·제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인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독특한 국적법에 기인한다. 국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회(同盟會)는 주로 미국, 일본, 동남아시

아 화교들로부터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장제스가 중화민국 국적법을 정식 공포한 1929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국부 쑨원(孫文) 자신이 하와이에서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화교들의 사정을 적극 반영해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중화민국 국적 소지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중화민국 국적 포기를 신청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민진당이 2000년에 국적법을 전면 개정할 때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32]

결국, 중화민국 출신의 미국 화교들은 미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국적자이다. 그들은 귀국만 하면 투표도 할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현재 타이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가조건이 생기긴 했지만, 입국 후 2개월이 지나면 투표권과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혜택을 받게 된다. 상당수의 미국화교들이 타이완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타이완에 호적도 가지고 있고, 만약 없더라도 6개월의 실거주 증명을 통해 호적을 만들 수 있다. 즉, 미국한화들은 미국의 국민연금격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를 받으며 (부동산 가격을 제외한다면) 물가가 저렴한 타이완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화잡지』에도 타이완을 화교들이 은퇴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꼽는 기사가 종종 실리고 있다(작자미상. 2013, 34). 여러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우수한 국민건강보험 체제이다.[33] 이를 잘 드러낸 예가 중풍에 걸렸다 회복한 한 화교의 글이다. 그는

32) 중화민국 국적법의 내용과 변화에 대해서는 Lien and Chen(2013) 참조.

33) 실제 미국한화들은 타이완의 국민의료보험인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높아서, 한국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한국의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대상들 중에는 중화민국의

상하이 출장을 갔다 타이베이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몸이 불편함을 느꼈다. 아내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들어섰을 때 간호사는 중풍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의사가 즉시 CT촬영을 하여 혈전을 발견하고 적절한 주사제를 투입하였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75분으로, 뇌경색에 골든타임이라고 일컫는 3시간보다 훨씬 빠른 조치였다. 이러한 훌륭한 치료 덕분에 그는 12시간 만에 언어 능력을 회복하고,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그는 만약 대륙에 출장 중이었더라면 이와 같은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李紹遠. 2015, 60-61).

타이완은 미국과 달리 음식도 입맛에 맞고, 교통도 편리하며, 국가나 개인기관들의 업무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도(작자미상. 2013, 34) 미국한화들에게 매력적인 은퇴 희망지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보내는 노년생활이 매우 단순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곳도 고속도로를 통해서야 갈 수 있어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마치 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제약이 많다고 느낀다. 미국은 젊을 때 사업하기에는 좋은 반면, 나이 들어서는 그다지 매력이 없는 곳인 것이다(작자미상. 2014b, 62).[34] 『한화잡지』에는 미국의 은퇴 생활에 대한 불편함, 미국화해 버린 자식 세대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기사도 종종 실린다(徐隆德. 2021, 37). 이들에게 타이완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태평양 건너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달린, 어떤 의미에선 젊었을 때보다 더 절박한 조국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변해가는 중화민국의 모습을 초초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중화민국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화교들에게 어렸을 때는 소속감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타이완을 방문하는 이도 있었다(F. 미시간, 2013년 8월 11일).

34) 이러한 미국 생활에 대한 불평은 미국을 잠시 방문한 한국화교에 의해서도 반복된다. 曹青菊은 미국 화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는 불편한 것이 없지만 권태롭다고 평했다(曹青菊. 2017, 11-12).

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던 조국이었고, 대학을 다녔다면 여러 혜택을 주며 환영했던 정부였으며, 은퇴를 전후한 지금은 유력한 은퇴 후 거주 후보지를 관할하는 국가이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인종들에게 상처받은 자부심을 되살려주고 특히 미중갈등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대상이지만, 결코 자신이 살거나 자녀에게 거주를 권할만하지도 않은 추상적인 조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이 중화민국의 타이완화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격렬한 반대의 감정은 중화민국을 향한 강렬한 조국의식의 이면인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 의식을 그들이 간행한 『美國齊魯韓華雜誌』라는 잡지의 기사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중화민국의 타이완화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2016년 이후 미중갈등이 그들의 조국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한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 중에서 아직도 중화민국에 대해 강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조국의식은 단순한 중화민국에 대한 충성이나 미련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었다. 중화민국의 타이완화로 인해 여권 효력 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화교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강조하며 귀화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 민주화를 통해 타이완의 현실을 비판하고 '계도'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타이완화한 중화민국이나 한국 정부에 한국화교의 이익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때는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지는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려 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일견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실은 일관되게 한국화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제국을 약탈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느끼며, 새로이 부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기대를 보인다는 점에서 역시 미국이 아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애정과 기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적 발전에 환호하고 고향인 산둥을 방문하면서 귀속감을 느끼지만, 현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고향 산둥 사람들과의 접촉면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막상 고향인 산둥에 가서는 변해버린 현대 중국어 때문에 혼란을 겪고 현지인들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탓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부족한 인권의식,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선뜻 중화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잦았다.

결국 그들이 진정한 조국으로 아직도 의지하는 것은 중화민국이다. 한국에서 차별을 겪을 때 심리적인 지지가 되어주었고, 학창 시절에 받은 교육의 영향도 크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중국 문화, 질 좋고 저렴한 의료보험 체계, 발달된 대중교통 덕에 이상적인 은퇴 후 주거지로 타이완을 정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 듯하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중화민국의 타이완화에 격렬히 반발하고 조국의식을 철회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반발은 외성인으로서 실제로는 그들이 은퇴 후 타이완에서 받을 법적/사회적인 처우에 대한 관심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즉, 그들의 타이완화에 대한 반발은 타이완섬 지역의 정치/사회질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과의 차이점은 이들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화교들이 겪어야 하는 무호적 여권의 폐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한국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적 자장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는 점에 있다.

투고일: 2023.06.12. 심사완료일: 2023.06.23. 게재확정일: 2023.06.26.

| 참고문헌 |

김경학. 2012, “한국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 광주 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1호*, pp.191-226.

김기호. 2016,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변화하는 한국 화교의 이주민 정체성: 서울 화교 사단 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 *아태연구 제23권 제3호*, pp.157-189.

김혜련·여병창. 2012, “한국 화교의 디아스포라적 다중정체성 고찰”, *國際言語文學 25호*, pp.53-77

박승혁. 2015, “中 구매력 기준 GDP, 美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일보* 2015년 7월 21일.

손준식. 2014, “냉전시기(1950~1971) 중화민국 僑務정책의 성격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43*, pp.51-80.

안병일. 2015, “미시간의 사례를 통하여 본 한국 화교의 미국 이주와 정착, 그리고 ‘미국한화(美國韓華)’ 정체성”, *한국문화인류학 48집 3호*, pp.3-46.

안병일. 2021, “미국한화의 다중정체성 저글링”, *비교중국연구 2권 2호*, pp.77-119.

왕언메이 저, 송승석 역. 2013, *동아시아속의 한국 화교-냉전체제와 조국의식*, 서울: 학고방.

왕엔메이. 2010, “한반도 화교들의 한국전쟁”. *역사비평 91호*, pp.94-127.

이창호. 2012a, “한국화교의 ‘귀환’ 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19집 2호*, pp 153-198.

이창호. 2012b, “이주민 2세대의 고향(home)의 의미와 초국적 정체성: 화교 동창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집 1호*, pp.3-41.

장수현. 2010,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국 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現代中國硏究 11집 2호*, pp.263-297.

조영한·팽의훤. 2019, “한국화교의 인터-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고찰: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아시아 리뷰 8권 2호*, pp.3-34.

崔仁茂. 2003, *韓華在浴火中重生*, El Monte, CA: 捌玖印刷公司.

잡지자료

柯文哲. 2021, ““這個”總統”,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80.

賈鳳鳴. 2011, “間語韓國華僑的普通話”, *美國齊魯韓華雜誌 30*, pp.10-11.

季冬. 2011, “高調低調 爲善最樂”, *美國齊魯韓華雜誌 29*, p.66-67.

季冬. 2014, “愛恨情仇臺韓異”, *美國齊魯韓華雜誌 39*, pp.15-16.

啓銘. 2010, “韓僑爭韓戰撫恤賠償”, *美國齊魯韓華雜誌 27*, p.68-69.

國政. 2010, “「撤僑」今昔談”, *美國齊魯韓華雜誌 27*, p.8.

鞠柏嶺. 2014, “館前街閒話(3)”, *美國齊魯韓華雜誌 35*, pp.8-9.

盧威攝. 2010, “尋找美軍遺骸 哀悼美軍亡魂”, *美國齊魯韓華雜誌 27*, pp.27-28.

莫然. 2015, “韓華思想交鋒多多益善”, *美國齊魯韓華雜誌 30*, pp.10-11.

劉學武. 2018, “一個華僑的告白”, *美國齊魯韓華雜誌 54*, p.25.

范湘濤. 2018, “懸崖勒馬鳴金收兵論美中貿易戰”, *美國齊魯韓華雜誌 55*, p.17.

范湘濤. 2019, “郭台銘 韓國瑜2020 臺灣大選向方”, *美國齊魯韓華雜誌 57*, p.5.

范湘濤. 2021a, “美國鷹視中國爲平等伙伴”, *美國齊魯韓華雜誌 63*, p.38.

范湘濤. 2021b, “發出整治信號 遏制形象娘炮”, *美國齊魯韓華雜誌 64*, pp.8-9.

范湘濤. 2021c, “塔利班 進京趕考 阿富汗前途艱難”, *美國齊魯韓華雜誌 64*, pp.32-33.

謝芷生. 2019, “欣見高雄卽將啓動新航程”, *美國齊魯韓華雜誌 56*, pp.34-35.

徐隆德. 2021, “擴大推動在美國重陽敬老精神刻不容緩”,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 37.

松濤君. 2010, “感謝民進黨?”, *美國齊魯韓華雜誌 28*, p.21-22.

水秉和. 2021, “阿富汗: 否極泰來?” *美國齊魯韓華雜誌 63*, pp.36-38.

隨元盛. 2019, “百年老店”, *美國齊魯韓華雜誌 56*, pp.16-17.

阿良. 2011a, “世界貧窮超大國”, *美國齊魯韓華雜誌 30*, pp.56-57.

阿良. 2011b, “缺德”, *國齊魯韓華雜誌 30*, pp.66-67.

阿良. 2017, “沒有國那有家”, *美國齊魯韓華雜誌 51*, pp.50-51.

阿良. 2019, “金蟬脫殼”, *美國齊魯韓華雜誌 56*, p.21.

焉晉琦. 2011, “回憶天安門學生運動談人權”, *美國齊魯韓華雜誌 30*, p.65.

焉晉琦. 2012a, “中華民國與我”, *美國齊魯韓華雜誌 32*, p.69.

焉晉琦. 2012b, “回顧旅韓華僑和韓國民族的恩怨”, *美國齊魯韓華雜誌 32*, pp.82-83.

焉晉琦. 2021, “移民美國四十年多少悲歡多少淚”,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p.38-39.

呂仁良 · 崔仁泰. 2007, “韓國華僑參加韓戰終結報告” “陳情函”, *美國齊魯韓華雜誌 15*, pp.8-12.

王善富. 2022, “從綠色電能政策來檢討臺灣民進黨的失策”, *美國齊魯韓華雜誌 65*, p.87.

于尙君. 2013, “韓華國籍的 三坌路口”, *美國齊魯韓華雜誌 35*, pp.24-27.

于尙君. 2014, “認識大韓民國 掌握韓華未來”, *美國齊魯韓華雜誌 40*, pp.5-9.

于尙君. 2015, “長江後浪推前浪”, *美國齊魯韓華雜誌 43*, pp.5-7.

衣建美. 2011, “心繫韓華 根紮永恆”, *美國齊魯韓華雜誌 31*, p.79.

李作堂. 2011, “返鄉雜記”, *美國齊魯韓華雜誌 31*, pp.38-39.

李作堂. 2015, “韓國深度遊-文化之旅”, *美國齊魯韓華雜誌 44*, p.24-28.

李作堂. 2017a, “悲哉!朴槿惠大統領”,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p.22-23.

李作堂. 2017b, “小英當權 天怒人怨”,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p.40-41.

李作堂. 2018, “和和統統”,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83.

李作堂. 2019a, “一封老朋友的來信”, *美國齊魯韓華雜誌 56*, p.53.

李作堂. 2019b, “祖國行的聯想”, *美國齊魯韓華雜誌 57*, p.57.

李作堂. 2021a, “疫中有感”,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31.

李作堂. 2021b, “臺灣憶往與今昔”,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p.58-59.

李紹遠. 2015, “我中風了快去醫院”,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p.60-61.

林湘音. 2021, “臺灣有選擧, 你就以爲自己活在民主制度下吗?. 到底什么是權威 什么是民主?”, *美國齊魯韓華雜誌 63*, pp.42-43.

子瑜. 2017, “臺灣女强人贈與希拉蕊的魔咒”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83.

작자미상. 2010a, “中國唐詩是韓國文化”, *美國齊魯韓華雜誌 28*, pp.16-17.

작자미상. 2010b, “韓國離不開中國歷史淵源”, *美國齊魯韓華雜誌 28*, pp.39.

작자미상. 2011, “西風刮龍角踐, 東風受益匪淺”, *美國齊魯韓華雜誌 30*, p.28.

작자미상. 2013, “最佳養老天堂”, *美國齊魯韓華雜誌 36*, p.34.

작자미상. 2014a, “中國 GDP 將超美國! 不爭覇權地位”, *美國齊魯韓華雜誌 38*, p.58.

작자미상. 2014b, “移民生活太無趣?”, *美國齊魯韓華雜誌 38*, p.62.

작자미상. 2014c, “馬總統, 你給我聽好!”, *美國齊魯韓華雜誌 39*, pp.40-42.

작자미상. 2014d, “我心戚戚臺灣加油!”, *美國齊魯韓華雜誌 39*, pp.56-47.

작자미상. 2014e, “中國文化又 “被韓國” 韓學者稱西遊記起源又韓國”, *美國齊魯韓華雜誌 41*, pp.60-61.

작자미상. 2015a, “兩個眞實的故事, 映襯出大陸社會和美國的巨大差異”, *美國齊魯韓華雜誌 42*, pp.60-61.

작자미상. 2015b, “中國造價三百億的巨型航母現身南海全球震警”, *美國齊魯韓華雜誌 42*, pp.68-72.

작자미상. 2017, “臺無法出席ICAO蔡英文不檢討自己?”,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25.

작자미상. 2018a, “美國媒體中國會成爲一個無可匹的超級大國嗎?”, *美國齊魯韓華雜誌 53*, pp.78-79.

작자미상. 2018b, “文在寅杷餠做大”, *美國齊魯韓華雜誌 54*, pp.5-6.

작자미상. 2019, “郭台銘 韓國瑜 平和, 奮鬪求臺灣”, *美國齊魯韓華雜誌 57*, p.83.

작자미상. 2021, “蔡英文敗訴”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59.

長征. 2011, “朝韓欲統一, 先從國民“修身”做起”, *美國齊魯韓華雜誌 29*, 5-6.

張文基. 2021a, “大選後的中美關係: 互爲對手不是敵人!”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p.78-79.

張文基. 2021b, “新冠失控 美機抵臺 臺海局面臨巨變的前夕?”, *美國齊魯韓華雜誌 63*, pp.13-14.

張泰河. 2021a, “民主與暴亂”, *美國齊魯韓華雜誌 62*, pp.8-9.

張泰河. 2021b, “醜惡的美國佬”, *美國齊魯韓華雜誌 64*, pp.15-16.

張泰河. 2022, “演戲與陰謀”, *美國齊魯韓華雜誌 65*, pp.5-6.

曹青菊. 2017, “旅美履痕”, *美國齊魯韓華雜誌 49*, p.9-12.

陳約翰. 2021, “從一支疫苗看移民臺灣”, *美國齊魯韓華雜誌 63호*, 2021 pp.16-17.

崔仁茂. 2007, “探索華僑參加韓戰人數之謎”, *美國齊魯韓華雜誌 15*, pp.8-12.

崔仁茂. 2013, “韓戰犧牲手足能否入土爲安?”, *美國齊魯韓華雜誌 35*, pp.40-41.

沈富雄. 2012, “蔡英文老爸在何處發的財?”, *美國齊魯韓華雜誌 32*, p.78-79.

佟秉宇. 2021, “國民黨人如何站起來?”, *美國齊魯韓華雜誌 64*, p.70.

Ahn, Byungil. 2016, “The Remigration of Ethnic Chinese in Korea to the US and Their Floating Ethnic Identity,” *Translocal Chinese: East Asian Perspectives 10*, pp.121-148.

Beng, I-Hsuan and Younghan Cho. 2019, “Inter-Asia Identity of Chi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ir Perspectives of China, Taiwan and South Korea,” *Asia Review 8(2)*, pp.3-34.

Choi, Sheena. 2001, *Gender, Ethnicity, Market Forces, and College Choices: Observations of Ethnic Chinese in Korea*, New York: Rodtledge.

Chun, Allen. 1996, “Fuck Chineseness: On the Ambiguities of Ethnicity as Culture as Identity,” *Boundary 2*, 23(2), 111-138.

Lien, Pei-te and Dean Chen. 2013, “The Evolution of Taiwan’s Policies toward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broad in Homeland Governance.” *Routledge Handbook of the Chinese Diaspora*, Oxfordshire, UK: Routledge, pp.42-58.

Ong, Aihwa. 1998, “Flexible Citizenship among Chinese Cosmopolitans.” In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edited by Pheng Cheah and Bruce Robbins, pp.134-16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